

360 홍콩 모멘츠

홍콩 관광청은 지난 10월 홍콩의 매력을 탐험할 수 있는 '360 홍콩 모멘츠 360 Hong Kong Moments' 캠페인을 론칭했다. 첫 번째 그레이프 아보토어 Great Outdoors 영상은 홍콩의 다이내믹함과 자연의 싱그러움을 전했다. 두 번째 시티스케이프 Cityscape 시리즈는 소셜 미디어 속 인기 있는 장소와 순간을 360도 VR 영상으로 몰입감 있게 담아냈다.

City vs Nature - 도심 속 공룡 열정 산책

약 552m 높이의 타이완산에 위치한 빅토리아피크에 서면 고층 빌딩과 나무숲, 바다와 그 건너편의 섬까지, 홍콩이 360도 파노라마로 한눈에 들어온다. 19세기부터 영국인들의 거주지로 사랑받았으며, 이제는 매년 약 700만 명의 방문객이 오며, 45도가 넘는 절경시료를 오토내러는 산책 기차 피크 트램을 타면 풍경이 도달하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서 홍콩 사람들의 산책 및 조깅 코스를 소개하는 '빅토리아피크 서클워크'로 참여보자. 빅토리아 리버부의 홍콩심나무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내려오다 보면 어린이부터 노부부, 연인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달하속 공방이, 만타관아, 포폴스어, 양어, 야영이 등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온다. 코스오몰러한 홍콩행이 실감난다.



- 1 홍콩 고층 빌딩들이 그대로 내려다보인다.
- 2 홍콩의 산악 기차인 피크 트램이 달리고 있다.
- 3 홍콩인들이 사랑하는 빅토리아피크 서클워크의 전망.
- 4 아틀라스 극장의 빅시 전경.
- 5 아틀라스 극장 내 좌석과 무대 전경.

아틀라스 극장의 부활

이스탄불의 관광명소인 이스티칼릴가예 아틀라스 극장 Atlas Movie Theater과 시네마 박물관 The Museum of Cinema이 새롭게 오픈했다. 1948년에 문을 연 아틀라스 극장은 2019년부터 2년여에 걸친 세밀한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터키의 영화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시네마 박물관과 함께 새롭게 오픈했다. 지난 2월에 열린 기념식에는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을 비롯한 각종 문화예술계 저명인사가 참석했다.

아틀라스 극장 복원과 시네마 박물관 개관은 터키의 '베이밀루 캠퍼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핵심 공간과 아타튀르크 공원, 갈라타 타워 등 이스탄불 유령 지구에 영초들을 연결해 베이밀루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문화사업이다.

아틀라스 극장은 핵심으로 오이는 사람들의 만남의 공간 역할을 해왔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리모델링을 진행해 무대부터 좌석, 음향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단장했다. 483석의 좌석, 4K 스크린, 13X7m 사이즈의 대형 무대는 물론, 라이브 시어터 등 다양한 퍼포먼스 어트쇼를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또한 갖추었다. 시네마 박물관은 아틀라스 극장과 같은 건물에 마련했다. 터키 영화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디지털 자료 보관소로서 터키 영화 산업에 크게 기여할 예전. 터키 영화와 관련한 8000여 개의 시네시사와 세계 영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60 HONG KONG Moments

